

『삼국유사』와 구비설화에 나타난 <치술령> 전승의 두 양상

김 정 은
(건국대학교 박사과정)

- I. 서론
- II. 『삼국유사』 <내물왕 김제상>과 역사적 전승
 - 1. 『삼국유사』 기이편 <내물왕 김제상>의 서사 양상
 - 2 ‘치술신모’를 통한 절개의 서사
- III. 구비설화 <박제상과 아내>와 전설적 전승
 - 1. 구비설화 <치술령 망부석>의 서사 양상
 - 2 ‘치술령 망부석’을 통한 ‘원한의 서사’
- IV. 역사적 전승과 전설적 전승 사이의 서사적 거리
 - 1. 두 서사 간의 문학적 논쟁
 - 2. 전승 사이의 서사적 거리를 통한 의미 논쟁
- V. 결론

<국문 요약>

이 논문에서는 『삼국유사』의 ‘치술신모’와 구비문학의 ‘치술령 망부석’에 나타난 전승의 두 양상에 대해 의미층위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삼국유사』에서는 박제상의 행적을 논하고 박제상의 처가 ‘치술신모’가 된 것을 서술하고 있다. 일연은 박제상이 임금을 향해 열렬한 충을 보였던 것과 같이 박제상의 아내의 남편을 향한 애끓는 ‘절개’를 치술신모로 칭송하고 있다. 구비설화에서 박제상의 처에 대한 이야기로 일본으로 건너간 남편을 기다리다 망부석이 된다. 그러나 『삼국유사』의 서사와는 상이하게 충과 절개보다 역사에 가려진 여성의 원망과 한을 보게 한다.

이렇게 다른 양상으로 전승되는 바탕에는 설화가 담고 있는 의미를 전승자들이 다르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 전승의 바탕에는 공동체에 대한 지향이 있어, 그것을 지난 시대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전승할 때의 시대적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전승하게 되는데, 일연 역시 마찬가지로 의미에서 ‘호국’의 시대정신으로 박제상의 충과 박제상 부인의 절개를 전승한 것이다. 이런 역사적 전승은 이후에도 국난이 있을 때마다 마을을 지키는 시대정신을 가진 ‘치술신모’를 연상하게 한다. 설화를 통해 시대가 지향해야 할 시대적 문학가치를 제시하며 역사적 관점에서 전승되고 있는 것이다.

그에 반해 전설적 전승은 ‘원한의 서사’로 역사에 가려진 사람의 삶에 주목하고 있었다. 열렬하게 변치 않는 마음으로 남편을 사모함에도 불구하고, 기다림에 지쳐 망부석이 될 수밖에 없었던 부인의 심정을 돌과 새로 상징하며, 남성의 대업으로 일방적인 이별을 해야 하는 여성의 원망을 투영하고 있다. 이렇게 전설적 전승은 역사의 틀, 규범, 가치를 넘어서 인간의 삶과 경험적 진실을 바탕으로 역사 속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기억으로 설화를 해석

하고 의미를 생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역사적 전승과 전설적 전승으로 인한 서사적 거리는 서로 다른 층위의 이야기로 나아가고 경쟁하고 있다. 그러나 두 전승에 나타난 서사적 거리로 인해 실상은 역사와 세상, 사람과 삶에 대해 다각적인 시각을 제시하며 서사적 공백을 보완하고, 삶과 역사의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의미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주제어 : 치술신모, 치술령, 망부석, 역사적 전승, 전설적 전승, 박제상의 처

I. 서론

설화에서는 동일한 소재로, 같은 상황에 대해서 전하는 여러 이야기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전해지는 이야기에는 전하는 사람의 상황과 인식에 따라 담고 있는 의미가 차이 있게 전승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문헌으로 전승될 때와 구비 전승될 때, 역사적이고 사실적인 전승과 설화적이고 허구적인 전승에 따라 양상 달라지는 것을 자주 접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서사적 차이는 새로운 이야기가 형성되는 지점만이 아니라, 사람과 세계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서로 다른 층위를 만들고 있고, 의미를 생성하고 있는가를 살필 수 있게 하는데, 그 하나의 좋은 사례가 <치술령>과 관련된 설화의 전승이다.

<치술령>에 관련한 설화에는 신라의 역사 속에서 충신으로 기억되는 박제상의 이야기와 그 일로 인해 부부가 이별을 하는 서사가 전승되고 있는데, 문헌설화에서는 박제상의 이야기로, 구비설화에서는 박제상의 아내 이야기로 같지만 다르게 전승되는 것이 특징이다.

역사적인 사건을 이끌어가는 사람과 역사적인 일로 인해 원하지 않았던 일을 겪어야 하는 사람의 서사는 하나의 사건이라도 다르게 기억될 수밖에 없고, 다르게 이야기될 수밖에 없다. 역사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사랑의 시작이 남자와 여자의 입장에 따라 다르게 기억되기도 하고, 이별을 통보하는 사람의 서사와 일방적인 이별을 당하는 사람의 서사는 같은 사건이라도 다르게 기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과거만이 아니라 현대까지도 이렇게 다른 남성과 여성의 입장에서 같은 사건을 서로 다른 서사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 소설이나 영화, 드라마의 소재가 되기도 한다. 남편인 박제상의 입장에서는 역사적인 행적을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고, 아내의 입장에서는 이별과 기다림이 서사의 큰 축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별을 맞이하고 기다린 아내가 『삼국유사』에서는 ‘치

술신모'가 된 것으로, 구비설화에서는 '치술령 망부석'이 된 것으로 다르게 전승되고 있다.

이에 대해 조동일은 “이런 변형은 『삼국유사』의 설화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망부석이 되었다는 것은 『삼국유사』에는 없는 사항이나 깊은 뿌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¹⁾ 했다. 실제로 <망부석> 설화라고 하면 치술령의 망부석이 제일 먼저 떠오를 정도로 ‘망부석’을 대변하는 설화로 인식되어 있기에, 합리적이지 않은 결말이지만, 그 깊은 뿌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권영호는 박제상 전승이 나름으로 충(忠)을 제재화(題材化)하고 일정한 정조를 표출한다는 관점에서 『삼국사기』 열전의 <박제상전>의 행적이 지닌 숭고함을 이상적 충으로 강조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고, 『삼국유사』 기이편의 행적은 희생적인 충이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는 행위로, 서사적으로 재현되어 긴박감과 숭고함을 느끼게 함으로써 이상적 충에 대한 경이와 긍정을 유도했다고 했다. 구전설화에서 역사적 사건이 제거된 현상은 이상적 충에 대한 회의로 숭고가 전승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았다.²⁾ 박제상 설화에 전승 양상에 대해 정리가 되었으나, 충에 대한 인식으로 변이양상을 살펴, 박제상의 이야기로 제한된 부분이 아쉽고, 문헌설화에 비해 구비문학의 변이양상이 가지는 전승의 인식 층위와 의미가 폭넓게 해석되진 않았다.

본고에서는 아내의 행적이 다르게 전승되는 지점에 착안해 전승의 의미 맥락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아내의 행적이 『삼국유사』에서는 ‘치술신모’로 구비문학에서는 ‘치술령 망부석’으로 다르게 전승되는 양상에 대해 의미 층위를 밝혀보고자 한다.

1) 조동일, 『삼국시대 설화의 뜻풀이』, 집문당, 1990, 270~271쪽.

2) 권영호, 「박제상 전승의 양상과 의미」, 『어문학』 제75, 한국어문화회, 2002.

II. 『삼국유사』 <내물왕 김제상>과 역사적 전승

1. 『삼국유사』 기이편 <내물왕 김제상>의 서사 양상

박제상(朴堤上)은 신라 눌지왕(訥祗王)대에 충절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왕명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면서 지킨 일화가 유명해, 울주 지역의 전설적 인물로 남아있다. 이런 박제상의 행적에 대해서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 볼 수 있는데,³⁾ 『삼국사기』에는 박제상의 행적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것에 반해, 『삼국유사』에서는 제상의 처와 관련된 지명설화와 함께 ‘치술신모’가 된 내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눌지왕의 두 아우인 미해와 보해가 각각 왜와 고구려에 볼모로 갔다가 역류되었다.
- ② 왕이 슬퍼하며 아우를 구출하고자 하니, 박제상이 충성을 다할 것을 말하며 왕명을 받아들인다.
- ③ 제상은 고구려에 가서 보해를 구해온다.
- ④ 왕이 미해를 그리며 눈물을 흘리자, 이 말을 듣고 박제상은 곧 임금에게 하직하고 나온다.
- ⑤ 곧장 말을 타고 집에 들르지도 않고 가자, 아내는 이 소식을 듣고 뒤쫓아

3) 그동안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의 차이 있는 기술로 박제상에 관련된 연구들은 역사적으로나 문학적으로 이어져 왔다. 그 중 눌지왕이 즉위하자마자 박제상에게, 고구려와 왜에 볼모로 가 있던 두 동생을 귀환하도록 한 의미를 왕권강화의 측면인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논문도 있다(沈在明, 「新羅 訥祗王代 朴堤上和 王弟歸還」, 서강대학교 석사논문, 1998).

또 박제상의 장렬한 죽음을 실감나게 서술한 대목에 대해 일언이 『삼국사기』보다 분명히 죽음의 근본적인 책임을 일본 쪽으로 규정하며, 문제의 핵심을 내부 갈등보다 신라와 왜의 외교적 마찰 쪽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 적에 대한 중요성을 고취시킬 목적으로 제상의 이야기를 변형시키거나 구체화시킨 것으로, 이런 일본관은 시대적 분위기의 흐름을 타도 만들어 졌다고 보고 있다(고운기, 『일연과 삼국유사의 시대』, 월인, 2001, 61쪽).

바닷가로 갔으나, 남편은 배위에서 손만 멈추지 않고 흔들었다.

⑥ 제상은 왜로 가서 신라가 제 부형을 죽인 까닭에 도망해 왔다고 하자, 왜왕은 믿는다.

⑦ 미해와 함께 낚시를 하며 왜왕을 안심시킨 후, 미해를 먼저 탈출시킨다.

⑧ 화가 난 왜왕이 심문하며 혹형으로 회유하려하나 제상이 굴복하지 않자 화형을 한다.

⑨ 미해가 무사히 당도하니 왕이 백관을 보내고 친히 마중을 하고 잔치를 베푼다.

⑩ 제상의 아내를 책봉하여 국대부인으로 삼고 그의 딸로써 미해공의 부인으로 삼는다.

⑪ 오랜 후에 부인은 사모하는 심정을 견디지 못하여, 세 딸을 데리고 치술령에 올라가 왜국을 바라보고 통곡하다가 죽었는데, 부인은 치술신모가 되었다.

이와 같이 『삼국유사』에서는 박제상의 행적을 역사적 시간과 사건을 바탕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중 ⑤단락, ⑩단락, ⑪단락에서 처의 행적을 볼 수 있는데, 박제상에 대한 애끓는 마음, 박제상에 대한 열렬한 마음을 박제상의 행적과 더불어 높이 평가하면서, 치술신모로 서사를 마무리하고 있다.

2. ‘치술신모’를 통한 절개의 서사

『삼국유사』는 박제상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중심으로 서사가 진행되고 있다. 박제상은 인질로 잡혀간 임금의 아우를 구하기 위해 집에도 들르지 않는 채, 이별을 하고 있는데 ⑤단락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정에 재배로 사례하고, 말을 타고 집에 들르지도 않고 행하여 바로 울포 바닷가에 이르렀다. 그 아내는 그것을 듣고 말을 달려 울포까지 쫓아가 그 남편을 보았으나 남편은 이미 배 위에 있었다. 아내는 간절하게 불렀으나 제상은 다만 손을 흔들고 멈추지 않았다.⁴⁾

여기서 아내의 입장에서 애끓는 이별의 슬픔은 표현되지 않았지만 말을 타고 달려왔는데도 만나지 못해 부르지만 했을 아내의 슬픔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박제상이 손을 흔들고 멈추지 않았다는 대목에서 박제상의 심경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일연은 이별의 아픔에 주목하기보다는 이렇게 아내와의 사사로운 정을 뒤로 하고 결연하게 이별하는 모습을 통해 박제상의 충성스럽고 우직한 성정을 돋보이게 해 주는 정도로 그려내고 있다. 특히 왜왕의 어떠한 회유와 고문에도 꺾이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결연하게 죽음을 맞는 박제상의 행적은 전승자에게 경이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왜왕이 화를 내어 말하기를, “너는 이미 내 신하가 되었는데, 계림의 신하라고 말한다면 반드시 오형(五刑)을 갖출 것이다. 만약 왜국의 신하라고만 한다면 반드시 후한 녹으로 상주겠다.” 대답하여 말하기를, “차라리 계림의 개·돼지가 될지언정 왜국의 신하가 되고 싶지는 않으며, 차라리 신라의 형장을 받을지언정 왜국의 작록은 받지 않겠다.” 하니, 왜왕은 노하여 제상의 다리 아래 가죽을 벗기고 갈대를 베어 그 위에 걸어가게 하고는(지금 갈대 위에 피 흔적이 있는데, 세속에서 제상의 피라고 한다.) 다시 물었다. “너는 어느 나라 신하인가?”, 대답하기를, “신라의 신하다.” 또 뜨거운 철판 위에 서게 하고 묻기를, “어느 나라의 신하인가?” 하니, 답하기를, “계림의 신하다.” 왜왕은 그를 굴복시키지 못할 것을 알고 목도란 섬 안에서 불에 태워 죽였다.⁵⁾

-
- 4) 再拜辭朝而騎馬，不入家而行，直至於栗浦之濱，其妻聞之，走馬追至栗浦，見其夫已在舡上矣，妻呼之切懇，堤上但搖手而不駐。(『三國遺事』紀異, <내물왕 김제상>)
- 5) 倭王怒曰，今汝已爲我臣，而言雞林之臣，則必具五刑，若言倭國之臣者，必賞重祿。對曰 寧爲雞林之犬豕，不爲倭國之臣子，寧受雞林之箠楚，不受倭國之爵祿。王怒，命屠剝堤上脚下之皮，刈蒹葭使趨其上[今蒹葭上，有血痕，俗云，堤上之血]。更問曰 汝何國臣乎 曰 雞林之臣也。又使立於熱鐵上，問 何國之臣乎 曰 雞林之臣也。倭王知不可屈，燒殺於木島中。(『三國遺事』紀異, <내물왕 김제상>)

이와 같이 박제상의 진실한 행위가 주는 경이감은 유교적인 질서와 맞물려 박제상과 같은 충과 절개를 신하의 도리로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실천하기를 바라는 의도가 느껴진다. 일연은 박제상을 중심으로 역사적 행적을 따라 전승을 한 후, 설화의 역사적 사실 이상의 그 의미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 보이는데, 논자를 들어 박제상을 찬하고 있는 대목이다.

논자는 말하기를, 옛적에 한나라 신하 주가(周苛)가 형양에 있다가 초나라 군 사에게 사로잡혔다. 항우가 주가에게 “네가 내 신하가 되면 만호후를 봉해주겠다” 하니, 주가는 꾸짖으며 굴복하지 않고 초왕 항우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제상의 충렬도 주가보다 부끄러움이 없구나.⁶⁾

박제상의 행적을 주가의 행적 못지않은 충렬로 그 의미를 찾고 있는 것이다. 어떤 이익을 계산하지 않고, 왕의 고뇌에 찬 눈물을 보고 행동에 옮기고, 아내와의 사사로운 정에 이끌리지 않고, 그 어떤 회유와 고문에도 굴하지 않으며 자신을 희생하는 박제상의 충이야말로 찬사 받아 마땅한 것으로 서사가 정리된다. 물론, 일연은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비해 기존의 자료를 활용함에 있어 그 내용이나 문체를 변개하기보다 원 모습 그대로 옮기는데 충실하였다⁷⁾고 한다. 그래서 자료를 의식적으로 변개하여 합리적 틀에 맞추려 했던 『삼국사기』에 비해 역사서술이 지향하는 사실성만이 아닌, 전설에 해당하는 허구적 성격이 유난히 짙은 편으로 서술되는 특징이 있다.⁸⁾ 여기서도 마찬가지다. 일연은 박제상의 충성을 찬한 논자의 평에서 이 설화를 끝내지 않고, 마지막 부분에 시간을 되돌려 부인의 입장에서 이별의 순간을 다시 전한다.

6) 議者曰 昔漢臣周苛在滎陽，爲楚兵所虜，項羽謂周苛曰 汝爲我臣，封爲萬祿侯，周苛罵而不屈，爲楚王所殺，堤上之忠烈，無愧於周苛矣。
(『三國遺事』 紀異, <내물왕 김제상>)

7) 신동훈, 『한국고전문학작가론』, 소명, 1998, 107~108쪽.

8) 위의 책, 108~112쪽.

처음 제상이 떠날 때에 부인이 이 소식을 듣고 뒤쫓았으나 따라 잡지 못하고, 망덕사 문 남쪽 모래 위에 이르러 드러누워 길게 부르짖었다. 때문에 그 모래를 장사(長沙)라 한다. 친척 두 사람이 부인의 거드랑이를 부축하여 장차 돌아오려 하니, 부인이 다리를 뻗고 앉아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그 지명을 벌지지라 했다. 오랜 후에도 부인은 사모하는 심정을 이기지 못하여, 세 딸을 데리고 치술령에 올라가 왜국을 바라보고 통곡하다가 죽었다. 이에 부인은 치술신모가 되었다.⁹⁾

박제상의 충성스러운 행적을 다 그려내고 마지막에 힘들었던 이별의 장면을 이렇게 덧붙이고 있다. 부인이 남편에 대해 얼마나 절절한 마음으로 떠나보내야 하는가가 느껴지고, 제상에 대한 열렬한 부인의 마음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마지막에 부인의 입장에서 벌지지라는 지명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당대에 구전되었던 설화 중에는 박제상의 입장에서 구전된 설화만이 아니라, 부인의 입장에서 구전된 설화가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런데 일연은 그 부인의 입장으로 구연되었을 설화를 마지막에 배치해, 후일담으로 넣어, 이별했을 때의 부인의 애끓는 마음을 절절하게 표현하고, 이후에 죽음을 알고 통곡하다 죽어 치술신모가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마지막에 후일담으로 배치되면서, 부인의 절절한 이별은 박제상의 충성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삽화로 기능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다. 이렇게 훌륭한 성정을 가지고 있는 박제상이기에 부인이 오랜 세월을 사모하는 심정을 견디지 못해, 통곡하다 죽어 박제상의 마음으로 왜국을 바라보며 마을을 지키는 치술신모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더 주목하게 되는 것은 부인의 남편을 향한 열렬한 마음과 변

9) 初堤上之發去也，夫人聞之追不及，及至望德寺門南沙上，放臥長號，因名其沙，曰長沙。親戚二人，扶腋將還，夫人舒腳坐不起，名其地曰伐知旨。久後夫人不勝其慕，率三娘子上瑯述嶺，望倭國痛哭而終，仍爲瑯述神母，今祠堂存焉。(『三國遺事』紀異, <내물왕 김제상>)

하지 않는 절개(節概)다. 이런 부인의 절개는 박제상이 왕을 향해 변하지 않는 충절로 보였던 것과 의미를 함께 연관 짓게 된다. 이렇게 이상적인 충과 절개를 실천하는 박제상처럼, 그의 아내 역시 불행한 결과 앞에서도 남편을 향한 절개를 굽히지 않았기에 존경을 받으며, 전설이 아닌 치술령의 신모가 되어 추앙된 것으로 연결 될 수 있다. 그리고 박제상의 아내가 국대부인으로 책봉되어 칭송되었던 것처럼, 치술신모가 되어서도 후대 사람들이 박제상과 박제상의 처와 같은 절개를 칭송하며 실천하기를 바라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임금을 향한 남편의 충과 남편을 향한 아내의 절개가 충절로 이어져 그 희생적인 마음에 저절로 우러러 보게 되어, 한편의 완결된 ‘미적 형상’¹⁰⁾을 주어 정서적 감응을 불러일으키는 서사가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왜왕의 어떤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을 희생하며 왕에게 충절을 보인 박제상과 같은 마음으로, 박제상의 죽음에도 변하지 않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왜를 바라보며 마을을 지키는 치술신모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Ⅲ. 구비설화 <박제상과 아내>와 전설적 전승

1. 구비설화 <치술령 망부석>의 서사 양상

<치술령 망부석> 설화는 ‘망부석’ 설화군의 대표적인 이야기로 박제상의 처와 관련되어 전승된다. 『삼국유사』에 박제상의 이야기가 박제상의 입장에서 서술되었다면 구비설화에서는 박제상을 떠나보내는 부인의 입장에서 구연되는데, 『한국구비문학대계』 유형분류 ‘542-1 남편 기다리

10) 신동훈은 한 이야기가 문학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미적형상’을 지녀야 한다고 보았다. 미적 질서와 긴장을 갖춘 구체적 형상을 통하여 정서적 감응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이러한 지향성이 텍스트를 형성하는 기본 축을 이루고 있다면 그 이야기를 문학의 범위에 포괄할 수 있다고 본다(신동훈, 『역사인물이야기 연구』, 집문당, 2002. 157~158쪽).

다 망부석 되기'로 자료 목록은 다음과 같다.

구비문학 대계 자료 목록 (542-1 남편 기다리다 망부석 되기) ¹¹⁾		
2-3	727쪽	북평의 망부석
6-7	597쪽	회룡산과 장군바위 전설
7-2	230쪽	치술령
7-2	283쪽	박제상 부인과 치술령
7-2	318쪽	치술령과 박제상 부인
7-2	324쪽	박제상 부인과 망부석
7-2	342쪽	박제상 부인과 망부
8-12	88쪽	치술령 망부석
8-12	265쪽	치술령 전설

이중 대표적인 서사를 단락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박제상이 장가 간 첫날밤에 첫날밤도 치르지 못하고 일본으로 가게 되었다. (혹은 첫날밤만 지내고 바로 일본으로 가게 되었다.)

② 부인은 얼른 나가서 분을 씻고, 평복을 입고 와, 남편이 화장했던 모습만 보고 떠나면, 돌아왔을 때 평복을 하고 있는 모습을 알아보지 못할 것 같아 평복을 했다고 한다.

③ 박제상은 대마도에 국경을 지키러 가면서 아내에게 혹시 대마도를 바라보다가 그 산에 흑운이 끼면 자기가 죽은 줄 알라고 한다.

④ 몇 해가 되도록 박제상 부인은 매일 같이 치술령에 올라가 대마도를 바라보았는데, 하루는 대마도에 흑우가 꼭 덮여 산이 안보였다.

⑤ 부인은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거꾸로 떨어져 망부가 되었다.

⑥ 부인의 몸은 망부석이 되고, 혼은 새가 한 마리 돼서 날아갔는데, 그곳이

11) 『한국구비문학대계』(1권~82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이하 ‘대계’로 약칭)

비조가 되었다.

⑦ 은을암이라는 절이 있는데 새가 거기에 숨어 절의 이름이 은을암이 되었다.¹²⁾

남편이 떠나서 어떤 일을 하는가는 자세히 구연하지 않고, 남편을 떠나보내고,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서사로 되어 있다. 일방적인 이별의 애틁는 심정을 더 절절하게 나타내기 위해 『삼국유사』의 세 딸은 없어지고, 첫날밤으로 설정되어 구연되고 있다. 그리고 부인이 나중에 남편이 자신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까봐 분을 씻고 오는 현명한 모습으로 그 안타까움을 더한다. 앞에 『삼국유사』에서는 “다만 손을 흔들고 멈추지 않았다”라는 결연한 이별의 장면을 보며 충절을 느끼기 전에, 숨가쁘게 달려온 아내의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고 가지하는 안타까움이 반영된 서사적 변이다.

가장 큰 특징은 『삼국유사』와 다르게 구비설화에서는 박제상 아내가 ‘치술신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몸은 망부석이 되고 혼은 새가 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것이 치술령, 은을암, 비조라는 현재까지 내려오는 지명과 연결되어 실제 있었던 사연임을 말하고 있다.

2. ‘치술령 망부석’을 통한 ‘원한의 서사’

구비설화에서는 아내의 기다림이 서사를 이끌어 간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 아내는 돌이 된다. 돌이 되어 그 곳에서 그 마음 그대로 현재까지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물론 돌이 된 아내의 마음에는 박제상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을 짐작하게도 한다. 그러나 구비설화에서는 그 변하지 않는 마음만이 아닌, 망부석이 될 수밖에 없었던 여인의 한을 망부석을 통해 이야기 한다. 『삼국유사』의 이야기와 다르게 남편

12) <박제상 부인과 망부>, 대계 7-2, 342~343쪽, <치술령과 박제상 부인>, 대계 7-2, 318쪽, <치술령 전설>, 대계 8-13, 265쪽

에 대한 사랑만이 아닌 기다림에 대한 원망과 한을 동시에 전달하고 있는데, ‘기다림’의 시작이 역사적 사실과 다르게 진행된다. 『삼국유사』에서처럼 자의적인 아내의 기다림이 아니라, 기다림마저 남편에 의한 것처럼 만들어, 마냥 남편을 기다려야 하는 아내의 기다림에 원망을 더한다.

그래가 이별로 하는데, 그래 그 박제사이 그 때야 어에 된지, 신라 때 대마도가 우리 나라 때이다. 대마도. 그래가 대마도에 인제 수달 살로(국경을 지키러 간다는 뜻) 가는데. 그 인제 지경(地境) 지키로, 인제 삼팔선 지경 모야오로 지키로 가는데, 그래 가만서.

“대마도 산 보이는 데 가가 날로 생각커덜랑 망부를 해라. 봐라. 만약 그 산에 흑우(黑雲)이 덮혔으면 내가 죽었어. 내가 죽으이 그를 보라.”

이카고 그만 갔뵈어.

그래이 그 산, 마주 이래가 청명한 날 보이기로, 여기 망부석 있는 데 무제당이 우에 밖에 없어. 그래 여 와서 여거(여기) (치술령을 손으로 가리키며) 와서 인제 망부(望夫)를 하는데, 망부석 돌이라 카만 몇 질(길)이라 거가. [청중 : 몇 길이지.] 그래가 머 얼마나 뵈는지. 몇 해가 뵈는지. 몇 달이 뵈는지 그건 모르고. 하로는 본께(보니까), 대마도 사(섬)이 흑우이 꼭 덮혀 사(산)이 안 보인단 말이라. (작은 소리로) “하하! 이 양반 인제 죽었구나.” 그래 머 거서 망부를 바라다가 마 꺼꾸로 떨어져 죽었다.¹³⁾

남편이 직접 “망부를 해라”라고 말한다. 『삼국유사』에서는 박제상이 죽은 이후에 부인이 사모하는 마음을 견디지 못해 바위에서 왜를 바라보며 울다 죽었던 것과 다르게, 남편의 말로 인해, 남편의 안위를 생각하며 망부를 하는 것으로 구연된다.

박제상씨가 갈 때,

“내가 누런 구름이 떠가 있거들랑, 동쪽을 향해가지고서는 노런 구름이 떠가 있으면 죽지 안 했고, 검은 구름이 올라오며 내가 죽은 줄 알아라.”

13) <박제상부인과 망부>, 대계 7-2, 342~343쪽

그래가 인자, [조사자:자기 부인한테다가?]부인잖에. 저 치술령 산만당아(山頂에) 가머 망주석, 바우가 이름이 바렐 망(望)자, 돌 석(石)자, 망두석이라 카는 방구가. 그 방구에, 만날 그 방구 우에 가가 딱 기다린다. 14)

여기서 박제상은 구름으로 자신의 죽음을 알릴 수 있거나, 자신이 죽는다면 하늘이 변할 정도로 그 신이한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박제상의 충성스러운 역사적 행적은 사라지고, 신이한 능력이 있어 그 비범함을 짐작하게 그려내고 있다. 그런데 이런 신이한 박제상의 능력은, 남편의 입장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내에게 자신의 처지를 알릴 수 있는 신이한 행적이고 마지막 배려의 마음이지만, 아내의 입장에서는 늘 치술령에 올라가 흑운이 뜨는 것이 아닐까 노심초사하며 먼 하늘을 바라봐야 하는 절박한 기다림이 된다. 이렇게 보면 박제상의 신이한 능력은 아내가 자신의 안위를 기원하며 늘 기다리기를 바라는 남편의 욕망이 신이함으로 가려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남편의 신이함이 나오지 않는 이본에서 남편의 말이 아닌 아내가 스스로 대마도가 보이는 치술령에서 남편을 기다리는 이본도 있다. 이 설화에서도 마찬가지로 왜에서 언제 올지도 모르는 남편을 한 자리에 서서 이제나 저제나 막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아내는 결국 돌아오지 않은 남편을 기다리다 돌이 된다.

망부석(望夫石)이라고 이름이 붙은 거는 바라을 망짜(望字), 지아비 부짜(夫字) 그 꼭대기 720고지 바위에 올라서서 동해바다에 남편이 돌아오기를 참, 참 일구웁심 학수고대 기다리던 그리고 바라보던 자리다. 그래서 지아비를 바라보면서 서서 있던 바위다, 그래서 망부석이다.

그리고 일설에 의하면 그 세 모녀가 죽어가지고 그 바위 망부석으로 화석이 되었다, 하는 설도 있습니다. 있고 또 베틀, 베 짜던 베틀도 돌이 돼가지고 직기석(織機石)이다 하는 그런 전설도 있습니다. [조사자:직기석요?] 예, 베틀, 직기석이 됐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요즘 사람들이 믿어 줄런지 모르겠

14) <치술령 전설>, 대계 8-13, 265-267쪽.

읍니다만은 그런 설이 지금 있습니다.¹⁵⁾

일방적인 이별은 아내를 기다림에 지쳐 죽음으로 이어지게 하는데, 그 한을 보여주기 위해 돌이 되어 그 자리에 몇 백 년을 서있게 된다. 그런데 죽어서도 돌이 되어 그 곳에서 떠날 수 없는 아내의 ‘원망과 한의 서사’는 세상살이를 이끌어가는 사람의 서사만이 아닌, 역사를 바꿀 수 없어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층위에 있는 여인의 회한(悔恨)을 끊임없이 생각해 보게 하는 설화로 전승되고 있다. 마지막에 은을암에 숨어있는 새 역시 돌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다림의 원한이 투영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기다림에 대한 원망과 한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비둘기에게 투영해 변이된 서사도 나타나는데 다음과 같다.

참 이래 보이 일본 대마도가 뵈일 듯 말듯 해. “저래 뵈는데 와 나는 몬 날라 가노? 몬 날라 가노?” 카이, 참 비둘기 바위가 치실령 말래이 거 하나 있그던. 비둘기 바위가 있는데. 그 때 비둘기 바우 우에 인자, 그 떡 올라 서가주고 참 올라 서가주고 이래, 머를 우에 짹짹거리까네. 이놈 빼돌기가 막 거서 몇 마리 나 날라가그던.

“빼돌키야. 빼돌키야. 이 빼돌키야 너는 저 대마도로 날아가면 우리 낭군 보 건마는, 나는 언제 참 저 대마도를 가가주고 우리 군자를 만나 볼꼬?”

크고, 이래 소리를 하며, 그래 빼돌기를 한 마리 붙잡을 라꼬. 말 좀 외전하자고¹⁶⁾ 이래 붙들라 카이, 암만해도 못 붙들라. 그 빼돌기 나오는 그 빼돌기 바우 말라아서 널째(떨어져)가 죽었부어. [조사자 : 아하 !] 죽었부러 노이 이놈의 끼 원호(원혼)이 났는지 어렸는지 참, 빼돌기 참 대마도로 날라 가가, “자기 맥 내가 거서 내 집 말라서 죽었다고 죽었는데, 어째 그치(그렇게 까지) 사람이 무정키 맥내를 냉정하게 그래 해 주노”그래 말을 전하더란다.¹⁷⁾

이 설화에서는 박제상이 왜에 가서 어떤 훌륭한 일을 했는가 하는 역

15) <치술령 망부석>, 대계 8-12, 88~94쪽.

16) 말을 비둘기에게 외우게 하여 소식을 전하려고

17) <박제상부인과 치술령>, 대계 7-2, 283쪽.

사적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박제상이 아내를 막연하게 기다리게 한 행위가, 아내에게 어떤 한을 주었는가 박제상도 알아야 한다는 원망의 심정이 강하게 비둘기에 나타나 있을 뿐이다. 이렇듯 망부석 설화에서는 남성의 대업으로 일방적인 이별을 해야 하는 여성의 원망이 투영되어 있다. 이렇게 전설적 전승은 역사의 틀, 규범, 가치를 넘어서 인간의 삶과 경험적 진실을 바탕으로 역사 속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기억으로 설화를 해석하고 의미를 생성하고 있는 것이다.

IV. 역사적 전승과 전설적 전승 사이의 서사적 거리

1. 두 서사 간의 문학적 논쟁

앞서 두 서사가 어떻게 다른 양상으로 전승되면서 어떤 의미를 생성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렇게 다른 양상으로 전승되는 바탕에는 설화가 담고 있는 의미를 전승자들이 다르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다르게 전승되는 서사적 거리는 의미의 차이를 갖게 하고, ‘문학적 논쟁’을 만들어 각기 다른 입장에서 삶과 역사를 바라보게 한다. 전승하는 사람들 나름의 설화의 의미와 층위가 다르게 인식되면서 전승자들의 세계관적 논쟁의 양상¹⁸⁾이 드러나는 것이다. <치술령 망부석> 설화에서 전승되는 박제상의 이야기는 『삼국유사』의 박제상 이야기와 비교해보면, 사실이 아닌 허구적 요소가 많다. 그러나 문학적 논쟁에서는 사실과 허구의 기준보다는 사실과 허구의 결합으로 독특한 문학적 효과를 낳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¹⁹⁾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18) 이에 대해서는 조동일의 연구를 주목할 수 있는데, 인물전설의 문학적 존재 방식을 다각적으로 연구해, 전승현장 및 집단과의 관련 속에서 인물전설의 사회적 의미를 드러내었다. 또 전설자료로부터 사회적 통념의 확인과 파괴를 둘러싼 다양한 의미의 층위를 드러내고 있다(조동일, 『인물전설의 의미와 기능』,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979).

19) 신동훈, 앞의 책. 153~154쪽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알리는 박제상의 신이함과 죽어서 돌이 된다는 비합리적인 발상이 오히려 세상에 대해 새로운 인식의 지점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역사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삶에 집중해, 망부석이 되도록 기다리고, 지금도 돌이 되어 기다리고 있는 아내의 삶이 커다란 세상의 가치에 의해 어떤 상처와 질곡으로 이어지는가를 보게 한다. 박제상의 아내가 치술신모가 되었을 때는 그와 같은 부인의 행적이 칭송되는 것이지만, 치술령의 망부석이 되었을 때는 한으로 얼룩진 비극적 결말에 대한 아쉬움이 돌이 되는 사람의 심정으로 충과 절개에 가려진 여성의 원망과 한을 보게 해, 그와 같은 일이 일상의 삶에서 벌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²⁰⁾으로 구연된다. 그리고 역사의 주체이자 세상살이의 주체인 지배층과 남성의 삶이 아니라, 결정권 없는 약자의 삶을 대변하며 전승되고 있다. 그래서 애꿎은 남편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에도 불구하고, 망부석이 될 수밖에 없었던 부인의 심정을 원한의 서사로 안타까움을 더해 감동을 전하고 있다. 즉, 전설적 전승으로 망부석의 서사에 기대어 신이함이 나타나 비합리적인 서사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치술령 망부석을 보며 돌이 된 부인의 절절한 심정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삼국유사』는 합리적이고, 사실적이고, 역사적으로만 서술되었을까? 『삼국유사』 역시 설화를 대하는 일연의 문학적 의미의 층위를 읽게 한다. 사실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하고, 합리적으로 서사를 이끌고자 했다면, 『삼국사기』에서처럼 치술령에 관련된 후일담 없이 왜에서 장렬한 죽음을 맞는 것으로 끝을 맺어야 했을 것이다. 그런데 『삼국유사』는 중심 서사의 흐름과 상관 없는 후일담인 ‘치술신모’의 이야기로 끝을 맺는다. 그리고 이렇

20) 신동훈은 전설에 있어서 텍스트 속의 좌절이 실제의 현실과 어떻게 만나면 서 어떤 정서 내지 의미를 환기하는 하는 점을 관건으로 지적하고 있다. 민간설화의 전승자들이 전설을 통하여 왜, 어떻게 주인공의 좌절을 문제삼는가 하는데 눈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신동훈, 『이야기와 문학적 삶』, 월인, 2009, 111~118쪽).

게 끝을 맺음으로써 규범적이고 합리적인 역사서인 『삼국사기』에 비해 비합리적이고 전설과 역사가 복합된 양상이 된다. 그러나 일연은 『삼국사기』에 비해 설화를 포용하고 개방적으로 전승하며 『삼국사기』와는 다른 문학적 논쟁의 지점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다. 일연이 『삼국유사』를 집필하기 시작한 것은 1277년에서 1281년 사이의 일로 추정한다.²¹⁾ 눌지왕의 치세를 417년을 시작으로 보고 있으니, <박제상과 처> 설화가 구전되어 『삼국유사』에 실리기까지 약 800년 넘는 시간차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런 시간차에 기반해 일연이 살았던 시대를 살펴보면, 정치적으로 문신집권기, 대몽항전기, 몽골의 정치적 간섭이 시작, 심화되기 시작한 때로, 30여 년간의 전쟁으로 고려 왕실은 물론 국가전체가 유린되고 백성들의 삶도 파쇄되었다.²²⁾ 안으로는 왕정회복, 밖으로는 주권확보를 구축해야 했던 고려 정치질서의 국가적 과제 앞에서 고려 정치질서의 신성성 강조를 통한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일연이 『삼국유사』를 편찬했다는 논의²³⁾에서 보았듯이 『삼국유사』는 당대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연의 의도가 보인다.

기이편에 있는 <내물왕과 김제상>편 역시 이런 시대적 문제의식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나라를 이끌어갈 위치에 있는 일연의 역사적 입장이 개입되어, 구비 전설과는 일정한 서사적 거리를 가지는 치술령의 이야기가 된 것이다. 박제상의 행적이 왕권강화와 주권회복의 구축에 큰 도움이 되었던 서사였던 것처럼, 아내의 ‘절개(節概)의 서사’가 당대의 시대정신인 호국(護國)과 충(忠)으로 이어져 단순히 지배이데올로기만이 아니라, 민간에서도 역사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시대적 문학가치로 작용하게 된다. 박제상과 부인이 살았던 때로부터 80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일연의 시대에는 물론이고, 후대 사람들도 이들의 마음이 왜

21) 신동훈, 『한국고전문학작가론』, 소명, 1998, 106쪽.

22) 안의순, 「『삼국유사』에 관한 정치학적 一讀」, 『溫知論叢』 제23집, 온지학회, 2009, 120쪽.

23) 위의 논문, 125쪽.

로부터 마을을 지키는 시대정신을 가진 ‘치술신모’로 전승되게 하는 것이다. 『삼국유사』에서 치술신모가 된 것은 박제상의 충성스러움과 연결되어 그 의(義)를 기리는 기다림으로 해석해 치술령 망부석의 설화와는 다른 층위의 의미로 경쟁하지만, 결국 아내의 기다림의 의미를 헛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며 보상하고 있는 것이다.

일연의 이런 전승태도와 남편을 기다리는 행적에 대한 의미부여는 지금도 구비전승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 지점을 형성한다. 조선을 거치면서 민간신앙의 성격²⁴⁾을 가지고 있었던 치술신모는 후세의 귀감이 되어 치산서원에서 박제상과 함께 제를 지낸다고 한다. 박제상의 충은 유교이념이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일연의 전승태도와 맞닿으며 전승되었을 것이다.

2. 전승 사이의 서사적 거리를 통한 의미 논쟁

이렇게 역사와 전설이라는 상이한 층위의 논쟁지점을 형성하는 <치술령> 이야기는 현대엔 어떤 의미를 주며 향유되고 있을까? 역사적 전승은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 전승된다면, 전설적 전승은 지명의 유래를 바탕으로 전승되면서, 둘다 팽팽하게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런 역

24) 이에 대해 『울주군지』에서는 “망부석 일원은 울산의 기우제를 지내던 곳이다. 박제상 부인 김씨부인이 신모로서 비를 내리는 신묘한 영험을 지니고 있다고 옛사람들은 굳게 믿었다. 김씨부인은 영험 깊은 신모로 민간신앙의 대상으로 정착되었다. 이런 민간신앙의 뿌리는 깊고 그 역사는 오래 이어간다. 일제시대까지도 비가 오지 않으면 치술령 주변 사람들은 치술령에 올라 이 신모사지 일원에 누군가 몰래 묘를 쓴 탓으로 믿고 산을 뒤졌다. 『삼국유사』 기록에는 치술부인을 기리는 신모사가 치술령에 아직 남아 있다고 했으니 일연이 『삼국유사』를 쓴 고려 충렬왕 때 까지는 신모사가 치술령 정상에 있었다. 이후 건물의 붕괴와 향사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신모사는 지금의 만화리 마을 지역으로 내려왔고 신모사는 유교의 번성과 함께 치산사의 한 부분으로 편입된다. 망부석 설화는 신모사와 함께 기우제 관련 민간신앙으로 지금도 끊이지 않는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울주군지』, 울주군지편찬위원회, 2002, 505~506쪽).

사와 전설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두 서사를 모두 알고 향유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서사적 거리를 좁히려는 의도가 나타난다.

역사적 사실은 물론이고, 구비설화에서 보고자 했던 전설적 전승의 의미 역시 현대까지 전승되며, 두 층위의 전승이 복합되는 경향이 보인다. 구비문학 대계에 한 구연자는 『삼국유사』와 유사하게 박제상의 행적을 따라가며 박제상이 왜왕에게 한 말을 그대로 재현한다. 그렇다면 구비문학이라 해도, 일연처럼 역사적 전승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결말 부분이다. 전설은 그러나 지역에서 강한 전승을 가지며, 구체적 증거물을 바탕으로 구술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치술신모를 모시는 사당은 현재에 없어졌고, 망부석과 새가 되었다는 전설의 유적들은 여전히 증거물로 남아 있다. 이에 대해 구연자는 치술신모와 망부석 두 가지 전승을 다 하고 뒤에 새로운 이야기를 덧붙여 역사적 전승에 힘을 싣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국수봉을 봉우리로 새가 세 마리가 날아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따라서 가보니 새가 날아서,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바위 틈이 있어요. [손으로 형용을 하면서] 이렇게 바위 굴이 암혈(岩穴)이 하나 있는데, 그 아주 잘 생긴 바위가 있습니다. 은을암(隱乙腐)이라는 암자 절이 있습니다마는 절이 있는 법당 뒤에 바위가 있습니다. 그 바위로 틈 사이로 세 마리의 새가 들어가고는 다시는 세상에 나오지 아니했다, 그래 가지고 숨을 은짜(隱字), 새 을짜(乙字) 자위 암짜(岩字) ‘은을암’이라 하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세 마리의 혼조가 이 바위에 들어가서 소위 그 일본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신라를 지키는 하나의 소위 그 수호신, 신라 국가를 지키는 수호신이 되었지 않았겠느냐 생각을 하면 이 봉우리를 이렇게 나라 지키는 국수봉이 맞다, 그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중략) 은을암이 그렇게 변모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그래서 그 절에다 지금 스님이 앞으로 박제상하고, 그 세 모녀하고를 기리는 충정각이라 그래서 사당을 하나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멀지 않아서 그 세 모녀를 그 절에서 빌어 줘야 된다. 세 모녀와 관계있는 절이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세운다고 얘기 듣고 있습니다.²⁵⁾

이 구연자는 상당한 식견이 있어, 앞에는 신라왕의 계보를 따라가며 전반부를 『삼국유사』와 비슷하게 구연했다. 그런데, 뒤로 가면서 전해지는 전설과 맞물려 원혼이 새가 되었다고 구연하나, 다시 아내를 박제상과 같이 숭고하게 생각하고, 새가 되어 바위에 들어가 신라를 지키는 수호신이 되어 있는 것으로 기존의 전설과 『삼국유사』에 없었던 내용을 전승하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울주군지』²⁶⁾를 보면, 국수봉은 현재 국수봉(菊秀峰)으로 표기되고 있으나, 국사봉(國祀峰)의 음전(音轉)으로 여기에 신모를 위한 국가의 제전이 있었음을 말해 준다고 보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전승자는 역사적 전승이 강해, 역사적 사실과 맞물려 『삼국유사』 문헌의 설화를 관점을 이어가, 망부석의 전설적 전승은 언급되는 정도로 이야기하고, 절개의 서사가 이끌었던 치술신모의 호국의 정신이 혼이라든 새가 되어, 국수봉과 은을암으로 들어가 일본을 저주하는 혼조가 되었다고 보고 싶다 하고 있다.

이렇게 ‘새’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전설적 전승에 나타나는 원혼의 연장선에 있는 ‘새’와는 다른 해석이다. 전설적 전승에서는 같은 서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전승하고 있다.

그 부인이 죽었는데 죽고 나이 새가 한 마리 돼가 날아 나가는데, 비조(飛鳥) 비조로 가가, 새가 그계로 가가 그래 그 짝 은을암 절이 있어. 지금 그 저 신라 때 절이가? 저 절이 있는데, 은을암 절에 가가 마 새가 숨어 마 없어. 그래가 은을암이지. 새 을(乙)짜, 숨을 은(隱)짜, 은을암이 났는데. 머 그렇다카는 그 돌도 있고 지명도 비조가 있다. 은을암이 있다. 그라이 그 거는 허언(虛言)은 아이여. [참중:허어이 아이지러.] 그래 되가 있지. 그래만 드었지.²⁷⁾

새가 숨었다는 것을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하며 경쟁하는 것이다. 저승이라든 남편의 혼령이 있는 곳으로 이미 날아갔기에 다시는 볼 수 없

25) <치술령 망부석>, 대계 8-12, 88~94쪽.

26) 『울주군지』, 138쪽.

27) 대계 7-2, 342-343쪽.

었다는 것과 새가 되어서도 바위나 절에 숨어 여전히 기다리는 것으로 말이다. 『삼국유사』에 박제상의 행적을 따라간 구비설화에서는 후자로 해석해, 숨어서 바위나 절에서 여전히 기다리며 왜에 대해 원망하는 절개 높은 아내로 연결한 것으로 역사적 전승을 한 것에 비해, 전설적 전승은 부인의 한으로 새가 날아간 것이고, 세상에서 숨은 것으로 해석하며, 망부석과 연관 짓고 있다. 전설적 전승에서 새가 된 것은 비록 몸은 돌이 되었지만, 혼이라도 ‘새’가 되어 남편에게 날아가고 싶은 간절함에 대한 보상이다. 이는 전설이 전하는 일차적인 정서 내지 의미는 안타까운 마음에 대한 동조일 것이다.

그렇다면 현대에 구비문학에서 전설적 전승이 아닌 역사적 전승으로 호국을 강조하는 서사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현대에 문헌설화들 중 구비문학적 요소를 수용하며, 망부석이 된 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내용이 있을까? 현대에 울산과 관련해 나온 책들을 보면, 한편을 제외²⁸⁾하고, 대부분은 『삼국유사』의 역사적 전승의 관점에 망부석 설화를 덧붙여 치술령을 설명하고, 치술령의 이야기를 간행하고 있다. 『삼국유사』의 역사적 전승과 치술령의 망부석 전승의 서사적 거리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겠다.

기다림도 한계가 있는 것, 김교부인은 매일처럼 치술령에서 눈물로서 지아비를 부르며 울부짖다가, 멀리 동해를 바라보던 그 자리에, 그만 몸은 망부석이 되었고, 낫은 두 딸과 함께 치술새로 화신 되었다고 한다. 오늘도 치술새는 치술령을 비행하면서 슬피 울다가 은을암 바위굴로 날아갔단다. (중략) 그리고 태평세월에만 모습을 나타내었다가 세월이 어지러우면 몸을 숨겨버린다는 새가 바로 치술새”라 한다.²⁹⁾

망부석이 되었다 하더라도, 전설에서 은을암에 몸을 숨겼던 새가 ‘치술새’로 명명되어, 세월이 어지러우면 몸을 숨기니, 태평성대를 기대하

28) 송수환, 『울산의 역사와 문화』, 울산대학교 출판부, 2007, 69쪽.

29) 이수봉, 『울산의 옛이야기 I』, 경인문화사, 2008, 25쪽.

며 새가 다시 나오길 바라며 제를 올렸던 신라의 민간신앙을 떠올리게 해 일연의 일관된 층과 열이 호국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전승이 강화되어 전설적 전승의 약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에 정리되고 있는 내용은 일관되게 망부석까지 역사적 전승으로 이어지게 하고 있다.

뒤에 신모사와 치산원을 세워 제사를 받들어 왔으나 지금은 없어지고 만화에 다만 그 터만 남아 있을 뿐이다. 치술령위에는 오늘도 망부석이 매서운 눈초리로 멀리 왜국을 바라보고 있다. 30)

망부석까지 “매서운 눈초리”로 왜국을 바라보고 있다고 정리하고 있다고 덧붙임으로써 호국으로 모든 감동을 모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치술령 망부석의 전설은 이제 합리적이고 역사적 사실에 밀려 문헌자료에서는 그 전승의 힘이 사라진 것일까? 다음은 『삼국유사』를 따르다가 망부석 설화를 덧붙이고 있는데, 그 짧은 두 줄에서 전설적 전승의 힘이 느껴진다.

오랜 뒤에 그 아내는 남편을 깊이 사모하던 나머지 세 딸자식을 데리고 수릿재에 올라가 높은 바위 위에서 왜국을 바라보고 통곡하다가 마침내 죽고 말았다. 뒷날 이 바위를 지아비를 사모하여 이 바위 위에서 남편이 가 있는 왜국 바라다보았으므로 인하여 “망부돌”이라 불러 온다. 31)

이 문헌 역시 기정사실이 되어 있는 박제상의 흔적을 따라가고 있다. 그러나 일연이 떠도는 설화들을 덧붙여 배치해, 절개의 서사로 역사적 전승을 완결했다면, 이 자료는 현대에 치술신모 신앙이 사라지고, 사당과 제가 없어져 구체적 증거물을 제시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을 생략하고, ‘망부돌’을 전설의 증거물로 제시하고 있다. 앞의 서사가 전설적 계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망부돌’이 뒤에 배치됨으로써 바위 위에서 하

30) 『울산의 전설과 민요』, 울산문화원, 1996, 15쪽.

31) 최상수, 『한국 민간전설집』, 통문관, 1984, 274쪽

염없이 남편을 기다리며 돌이 되었을 아내의 심정이 그려지게 된다. 그만큼 합리적인 세계관으로 모든 내용을 포섭할 수 없는 전설의 세계관은 역사적 전승으로 좁혀진 서사에서도 그 깊이를 무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요컨대, 역사적 전승과 전설적 전승은 그 전승에 바탕 된 인식의 틀을 읽게 한다. 그러나 역사와 전설이 갈라져 서사가 진행되는 것만이 아니라, 두 가지의 서사가 복합되어 현대에 전승되고 있다. 역사적으로만 전승된다면 사회가 될 것이고, 전설적으로만 전승되기에는 현대인들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역사인식으로 인해, 박제상의 행적까지 바꾸는 비합리적인 부분을 그대로 문자로 수용하기는 힘들게 된다. 그러다 보니, 두 서사간의 거리가 복합된 층위의 서사가 많이 나타나는데, 문자로 인한 역사적 전승이 우세하지만, 여전히 전설을 소개하며 전설적 전승을 수용할 수밖에 없어, 망부석의 한으로 인간의 삶과 사랑을 다각적으로 생각하게 문학적 상상력을 자극한다. 이렇게 <치술령> 설화는 다른 층위의 인식의 틀에도 불구하고, 서사를 서로 경쟁하고 보완하며 전승하게 된다.

V. 결론

이상에서 『삼국유사』의 ‘치술신모’와 구비설화의 ‘망부석’에 나타난 전승의 두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렇게 다른 양상으로 전승되는 바탕에는 설화가 담고 있는 의미를 전승자들이 다르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 전승의 기저에는 공동체에 대한 지향이 있다. 그것을 지난 시대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전승할 때의 시대적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전승하게 되는데, 박제상 부인의 남편을 향한 변하지 않는 ‘절개의 서사’가 박제상이 왕을 향해 변하지 않는 충절로 의미를 함께 연관 짓는 것은 물론이고, 당대의 어려운 상황을 설화를 통해 시대가 지향해야 할

시대적 문학가치로 작용하며 전승된다는 것이다. 이 후에도 역사적 전승의 서사는 나라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박제상과 박제상 처의 마음이 왜로부터 마을을 지키는 시대정신을 가진 ‘치술신모’로 전승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에 반해 전설적 전승은 ‘원한의 서사’로 역사에 가려진 사람의 삶에 주목하고 있었다. 애끓는 남편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에도 불구하고, 망부석이 될 수밖에 없었던 부인의 심정을 원한의 서사로 안타까움을 더 하며, 기다려야 하는 부인의 절절한 심정이 ‘돌’로 상징되어 전승되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역사적 전승과 전설적 전승으로 인한 서사적 거리는 서로 다른 층위의 이야기로 나아가며 경쟁하고 있지만, 두 전승의 거리로 인해 역사와 세상, 사람과 삶에 대해 서로 보완하며 삶과 역사의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었다.

문자로 기록되는 순간 역사적인 기정사실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울산의 치술령에 관련된 설화를 설명하는 현대의 간행물이나, 유적의 표지판은 문자로 우리에게 합리적인 사고로 박제상의 높은 행적과 연관되는 박제상 아내의 행적을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구체적 증거물은 전설적 전승을 이어가게 한다. 그래서 치술령에 있는 유적의 표지판은 앞의 서사는 『삼국유사』에서처럼 박제상의 행적을 역사적으로 서술하고, 뒤에 부인이 망부석이 된 것을 망부석을 소개하며 전승하고 있다. 박제상의 절개 있는 행적과 아내의 원한을 모두 담아 새로운 형태의 설화로 변이되어 전승되는 것 같지만, 『삼국유사』에서의 치술신모가 주었던 절개의 서사로 인한 비장미와 치술령 망부석 전설이 원한의 서사로 안타까움을 더했던 감동이 전해 지지 않고 있다. 때로는 역사적 전승에 가려진 전설적 전승의 설화가 역사적 지배이데올로기를 다시 보게 하여, 역사와 세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삶에 대한 문제의식을 던져 준다는 점을 있게 된다. 그렇기에 역사적 전승만큼이나 전설적 전승 역시 우리에게 공동체를 치유하며, 서로 다른 입장의 경험을 생각해 보게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적 전승과 전설적 전승의 서사적 거리가 세상과 공

동체에게 각기 다른 경험과 의미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되길 기대하게 된다.

▷접수일 : 09.12.10 / 심사일 : 10.01.10 / 심사완료일 : 10.01.15

<참고문헌>

『삼국유사』

『울산의 전설과 민요』, 울산문화원, 1996.

『울주군지』, 울주군지편찬위원회, 2002.

『한국구비문학대계』(1권-82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고운기, 『일연과 삼국유사의 시대』, 월인, 2001.

권영호, 「박제상 전승의 양상과 의미」, 『어문학』 제75, 한국어문학회, 2002.

송수환, 『울산의 역사와 문화』, 울산대학교 출판부, 2007.

신동훈, 『한국고전문학작가론』, 소명, 1998.

신동훈, 『역사인물이야기 연구』, 집문당, 2002.

신동훈, 『이야기와 문학적 삶』, 월인, 2009.

안외순, 「『삼국유사』에 관한 정치학적 一讀」, 『溫知論叢』 제23집, 온지학회, 2009.

이수봉, 『울산의 옛이야기 I』, 경인문화사, 2008.

조동일, 『인물전설의 의미와 기능』,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979.

조동일, 『삼국시대 설화의 뜻풀이』, 집문당, 1990.

최상수, 『한국 민간전설집』, 통문관, 1984.

Abstract

The two aspects of traditions about <Chisul-ryoung> found in <Samkook-yusa> and Oral tales / Kim, Jung Eun

This study researched the meaning difference of the tradition's two aspects found in both "Goddess Chisul" mentioned in <Samkook-yusa> and "Chisul-ryung Mangbu-seok" mentioned in oral literatures.

According to "Samkook-yusa", the wife of "Park, Je Sang" is "Goddess Chisul". And that could be interpreted that the wife's fidelity was applauded like his loyalty for a country. However, according to oral literatures, the wife of "Park, Je Sang" is "Chisul-Mangbu-seok" which could be the symbol of women's grudge and regret hidden by the loyalty and fidelity.

In sum, the husbands' loyalty for the king and wives' fidelity for their husbands was continued to the loyalty for a country and that made people sympathize with a sacrifice in terms of a historical tradition.

The people's minds which wished to overcome a national crisis caused by invaders through narratives of loyalty was continued to "Goddess Chisul", like the time when Il, Yeon compiled <Samkook-yusa> which contained the contents about the defense of a county.

In comparison with a historical tradition, "Mangbu-seok" was interpreted as the wife's ardent feeling for their husbands in terms of a legendary tradition which focused on narratives of grudge.

In conclusion, as I said, even though there is the narrative gap of the interpretation about <Chisul-ryung> tales between a historical traditions and a legendary traditions, I found these two view points has proceeded differently and competed with each other, and made up for each other's insufficient

interpretation about the world, history and human beings in order to approach to the truth of the history and life and formed a cultural controversy.

Key words : Goddess Chisul(치솔신모), Chisul-ryung(치솔령), Mangbu-seok(망부석), historical traditions, legendary traditions, Park Je Sang's wife(박제상의 처)